

중국문화가 중국의 대외원조에 미치는 영향

— 중화중심주의와 대국의식을 중심으로 —

표나리*

目 录

1. 들어가는 글
2. 선행연구 검토
3. 중국문화가 중국의 대외행위에 미치는 영향
 - 1) 중국문화 속의 자아와 타자
 - 2) 중국문화에 내포된 가치관과 이익관
 - 3) 중국의 대외행위 방식
4. 문화와 중국 대외원조의 특성
 - 1) 중국 원조의 기반
 - 2) 중국의 정체성과 대외원조
 - 3) 중국 원조의 수혜국들
 - 4) 중국의 원조 방식
5. 맺는 글

1. 들어가는 글

21세기 이후 강화된 중국의 경제적 위상과 함께 중국의 대외원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49년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총액은 4000억 위안으로, 그 중 2010-2012년간 원조액만 893.5억 위안에 달하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 비록 중국 정부가 대외원조의 정확한 수치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나,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추산할 때 중국원조의 규모는 세계 8~10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清華大學 國際關係學系 博士研究生, 湖西大學校 講師.

1)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中國的對外援助(2014)白皮書』, 2014.

국제사회의 모든 대외원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원조는 중국 외교 정책의 일부로써, 본질적으로 중국의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타국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 구성원의 의무이며 보편적 도덕이라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동기도 작용한다. 그러나 중국 원조에서는 여타 공여국들과 구별되는 특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국가수립 초기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실시했다거나,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수혜국의 정치적 상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양자원조의 비중이 높으며, 수혜국의 환경에 걸맞지 않는 대형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 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들을 구성주의 이론의 틀 속에서 중국문화 요소를 통해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대외행위의 일부로서 중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내포한다. 본문에서는 중국문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관념을 토대로, 중국이 대외원조의 시행 가운데 어떻게 자신과 타자(수혜국)의 관계를 인식하고 처리하며, 어떤 방식으로 원조의 목표와 이익, 방법 등을 규정하는가를 살펴본다. 문화를 통한 분석은 다시 말하면 중국이 무엇을 ‘국익’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원조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기존의 중국 대외원조 연구가 역사, 목적, 효과 등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의 원조는 중국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실주의적 보편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졌기 때문에, 중국원조만이 가진 특징은 추가로 고찰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원조방식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지속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중국의 문화와 대외행위 간의 상관성 및 중국의 대외원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

1) 중국 문화와 중국의 대외행위 연구

최근 중국의 국제 정치적 영향력 증대에 힘입어 중국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토대로 소위 '중국적 행위'의 근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²⁾ 중국 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성주의와 이익 최대화 관점에서 국제관계 및 중국의 대외행위를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역사, 사회, 민족 구성, 종교 등 문화적 요소에서 시작해 중국의 대외 행위와 정책을 해석하려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 중국의 고대 사상 가운데서 현대 중국 대외행위의 근원을 찾는 것으로, 관중, 순자, 맹자 등의 고대 사상가들의 철학에 비추어 국제 질서와 국가의 행위를 해독해 낸 엔쉐통(閻學通)의 연구가 대표적이다.³⁾ 둘째, 조공체제와 천조관(天朝觀) 등 고대 동아시아의 중화중심적 세계관을 현대의 세계 질서와 대조해 국제체제 수준에서 중국의 대외 행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셋째, 정통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출발해 중국의 국가 정체성을 정의한 후, 그에 걸맞는 국제적 지위 및 역할을 모색하는 방식의 연구로서, 본문에서는 상술한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했다.

국제관계 학계는 1970년대 중반 미국의 패권 쇠퇴에 대한 경고음과 더불어 세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물리적 권력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반향으로 등장한 것이 문화 등 비물질적 요소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1990년대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 출간되면서 문화와 문명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웬트(Wendt)가 저서 『국제정치와 사회이론』에서 문화, 규범, 공통의 지식, 정체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구성주의 이론을 주장하며 이전까지 학계의 주변부를 맴돌던 문화를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

2) 헨리 키신저(Kissinger)는 중국 외교사상의 핵심은 외부에서 유입된 어떠한 이데올로기보다도 전통 사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Henry Kissinger, *On Chin.*, Penguin Press, 2010.

3) 閻學通, 徐進等. 『王霸天下思想及啓迪』,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9.

들었다.⁴⁾

국제관계 학계의 문화열풍이 헨팅턴으로부터 시작된 현상이라면, 중국 전통문화를 통해 중국외교를 바라보는 현상은 미국의 중국 연구자인 존스톤(Johnston)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존스톤은 중국 고전 및 명나라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중국의 전략 문화가 극단적 현실주의(Hard real politik)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⁵⁾ 그의 영향을 받은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 문화가 중국외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게 되었다. 다만 중국학자들은 존스톤의 분석과는 정반대로 중국문화 가운데 평화적 요소를 찾아내 선린우호가 중국외교의 전통이었음을 필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문화의 본질을 강조한 연구들은 다음의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통일된 다민족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된 역사적 기억과 경험이 중국인의 국가관과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⁶⁾ 둘째, 국내 대중의 국가 인식과 태도가 중국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작용하며, 자아 정체성은 대외 정책의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⁷⁾ 셋째, 중국에 대한 외부 세계의 판단 즉 '타자'의 견해 역시 중국의 정체성에 투사된다는 것이다.

2) 중국 대외원조 연구

중국의 대외원조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중소 관계 악화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 학자들은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세력범위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이후 학계는 중국의 대규모 원조 프로젝트가 실시될 때마다 일시적으로 관심을 보여, 1970년대 탄-잠 철도⁸⁾ 건설 지원에 관한 연구나

4)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5)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6) 姚大力, 「中國歷史上的民族關係與國家認同」, 『中國學術(第12輯)』, 北京: 商務印書館, 2002, 204쪽.

7) 秦亞青, 「中國文化及其對外交決策的影響」, 『國際問題研究』(5), 2011, 5쪽.

1980년 전후의 대 베트남 원조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국 대외원조 연구는 1987년 OECD가 『중국의 원조 방안』⁹⁾을 공표한 이후 보다 체계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예컨대 1990년대의 연구는 대 아프리카 원조를 대상으로 하여 중국 원조의 경제적 동기에 주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중국이 공여국 역할에 더욱 매진함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도 중국의 대외원조에 관한 연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스린(石林)의 『당대중국의 대외경제 합작』¹⁰⁾등이 대표적인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자유주의 이론을 토대로, 중국 원조를 국제 경제협력의 일부로 평가한다.

반면 21세기의 중국 대외원조 연구는 좀 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공여국 국익론¹¹⁾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중국의 대외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대외원조가 어떻게 평화로운 국제 환경 조성하고 발전의 토대가 되어, 결국 중국의 안보이익과 경제 이익으로 돌아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원조의 당위성을 보여주려 한다.¹²⁾¹³⁾

국내에서도 중국 대외원조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중국 원조의 목적, 수행방식, 관리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소개이며,¹⁴⁾ 둘째는 대북 원조를 중심으로 중국의 행

8) Tanzam Railway. TAZARA Railway 또는 Uhuru Railway로도 불리며,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과 잠비아의 카피리음포시를 잇는 단선 길이 1,860km의 철도이다. 내륙국인 잠비아가 소수 백인정권이었던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했으며 중국이 지원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9) 1970~1985년 간 80여개 개도국에 지원된 중국 원조의 총액, 지리적 분포 및 원조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중국의 대외원조에 관해 소개한 최초의 공식 문건이다: OECD, *The Aid Programme of China*. Paris: OECD, 1987.

10) 石林, 『当代中國的對外經濟合作』,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11) 대외원조는 대외 정책의 일부로서, 국익 추구를 최종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 원조를 전략적 요충지의 선점 및 확대, 동맹의 공고화, 해외 시장 개척, 천연 자원의 확보 등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12) 白云眞, 「中國對外援助的戰略分析」, 『世界經濟與政治』, 2013(5).

13) 동시에 연구 말미에서는 언제나 중국 원조가 “多予少取” 원칙을 실천함을 강조하는 모순도 나타난다.

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다.

이렇듯 중국의 대외원조에 관련된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 경제원조에 집중되어 있고, 이론 면에서도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프레임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본연의 문화나 가치관 등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나, 대다수가 ‘인(仁)’이나 ‘화(和)’ 등 유교의 가치가 정책결정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나열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3. 중국문화가 중국의 대외행위에 미치는 영향

본문이 지칭하는 중국 문화란 대다수의 중국인, 즉 정책 결정자와 일반 대중 모두가 보편적으로 품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및 행위방식을 포괄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종교적 신앙이 없는 무신론국가의 이미지를 표방한다. 그러나 량슈밍(梁漱溟)과 평요우란(馮友蘭)이 지적했듯, 중국은 도덕과 철학이 종교를 대체해온 사회로서,¹⁴⁾ 특히 유교는 중국인의 사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종교가 일종의 사회현상으로서 일련의 신앙 체계와 실천 활동 및 도덕규범을 포함한다는 사회종교학 이론에 비추어 볼 때,¹⁵⁾ 유교는 종교적 성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위인유기(爲仁由己)’,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자임이천하지중(自任以天下之重)’, ‘진성지명(盡性知命)’ 등의 덕목들은 개인의 수양과 도덕적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중국 사회에 강력한 도덕의식을 주입했다. 또한 천명관(天命觀)과 군권신수(君權神授)설을 통해 통치의 합법성을 주장함으로써 정권과 사회의 안정을 유

14) 권율,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 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특성과 매커니즘 연구」, 『비교경제연구』19(1), 2012; 여유경, 「중국식 개발 원조의 등장: 역사적 변화와 특색」, 『세계정치』24(0), 2016등이 있다.

15) 馮友蘭, 『中國哲學簡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16)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Oxford Paperbacks, 2008.

지하는 정치적 기능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상숭배 및 도덕을 중시하는 성향은 종법 사회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 비록 문혁시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으나, 현재 중국 정부는 다시금 화해, 포용, 후덕 등 유교의 핵심 가치관들을 중국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유교를 중국인의 세계관 및 가치관 형성의 핵심이 되는 사상적 기반으로 인식한다.

1) 중국문화 속의 자아와 타자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은 ‘천하관(天下觀)’으로, 천하는 사해(四海)라고도 하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자리한다. 중국문화의 핵심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에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은 오늘날까지 중국이라는 국명에 그대로 남아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또한 유교적 세계관에 따라 개인 간,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하고 화합을 실현한다면 최종적으로 온 세상이 평화로운(協和萬邦)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제 체제와 국가의 안정이나 주변국들 간의 화목을 강조하는 경향은 여기에서 생겨났다.

중국이 가지는 또 하나의 정체성은 대국이다. 대국 개념은 인구, 영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실상부한 대국은 물리적 힘, 정치적 영향력, 사회 문화적 역량 등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된다.¹⁷⁾ 진(秦)의 통일 이후 중국은 2000년간 세계적 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궁핍한 신생국가로 전락하고만 20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국제적 책임을 지닌 사회주의 대국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중국이 아직 낙후되었으나 필경 대국일진데, 조선(북한)이 죽어가는 것을 나 몰라라 한다면……어디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¹⁸⁾라는 마오쩌둥의 말에는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대국이 되고 싶었던 중국의 열망이 잘 드러나 있다. 비

17) 趙良英, 「中國負責任大國身份的构建——兼評西方中國責任論」, 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18) 彭德懷傳編寫組, 『彭德懷傳』,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06, 236쪽.

록 몇 차례 쇠락의 시기를 거쳤으나 중국의 국가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대국의 기초 위에 있었다. 중국은 대국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적 역량으로서 관용을 내세우는데, 관용의 전제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정체성에서 비롯한 자신감이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국제적 영향력과 국제 여론에 대한 호소력이 일반적으로 대국에게 기대되는 정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하고 심지어 열등감마저 가지게 되었다.

고대 중국의 자아가 세상의 중심이자 대국이라면, 타자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내해와 외해에 위치한 이민족(夷)들이다. 사실 사해는 지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중국인이 창조해낸 정치 문화적 공간에 가깝다. 천하 체제 하에서 중국과 변방을 나누고, 양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표가 문화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족과 국가의 문명화 정도가 오로지 중국 문화와의 유사 정도에 따라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당시 중국과 이민족, 그리고 이민족들 간에도 귀천을 구분했다. 예컨대 중국 문화의 핵심인 유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조선과 월(越)은 비교적 문명화된 이민족으로 인식되었고, 유사성이 떨어지는 일본과 북방 유목민들은 야만적인 것으로 폄하되었다.

2) 중국 문화에 내포된 가치관과 이익관

비록 문화 본연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민족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의 경우에는 대국이라는 정체성에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라는 물리적 우위가 더해져 더욱 쉽게 타문화를 저평가하고 배척하는 심리를 가지게 되었다. 소위 “덕으로써 네 오랑캐를 교화한다(德化四夷).”는 사상은 중국의 교만을 잘 드러낸다. 당시의 매우 중국적인 표현을 빌자면 “왕은 오랑캐를

19) 일례로 베이징시가 2011년 11월 공표한 '베이징 정신' 슬로건에는 포용(包容)과 덕(厚德)이 포함되었는데, 정부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포용은 중국인의 기개이자 도량이며 "중화문명의 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치하지 않았(王國不治夷狄)”는데, 현대적으로는 ‘약소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이 내정불간섭을 거론할 때, 그 저변에는 과거의 우월감이 만든 관용이 깔려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이다.

중국이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만들고 지켰던 조공체제의 경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았으나,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제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첫째, 고대 중국은 바로 국제 체제 그 자체였으므로 조공체제의 최종 목표인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은 곧 중국의 안정과 번영을 의미했고,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엘리트들은 나름대로 도덕적 가치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려 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종주국으로서 중심을 잡고, 조공 무역 등 국제 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대국이나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여기는 국가들은 도의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와 다른 나라들의 존경을 받고, 대국에 걸맞은 권위가 생겨나 발언에도 위신이 서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다시금 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며, ‘책임있는 대국(負責任的大國)’을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3) 중국의 대외행위 방식

문화에 내포된 가치관은 국민들의 행동에 목표와 방향성을 부여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유교는 특히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철학이기 때문에 중국인은 ‘인으로써 사람을 사랑하는 것(仁者愛人)’을 이상적인 행동방식으로 꼽는데, ‘인’이란 관용, 동정, 존중, 자상함 등을 포함하는 가치이다.²⁰⁾ 유교의 사랑은 개인 간의 관심에서 시작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널리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경지에 다다를 것을 요구한다.

20) 『論語·顏淵』

중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한 특정한 행동양식들은 외부와의 교류 활동에도 반영되어 외교의 원칙, 이념, 실시수단 등에서 중국만의 고유한 행동방식 체계가 나타난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국이 '인'을 중시하는 나라임을 무척 강조하는데, 역대왕조들이 조공국에 대해 '적게 받고 많은 회사를 주는' 21)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고 한다거나, 22) 1955년 반둥회의에서 발표된 『평화공존 5항원칙』 23)의 내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실제 중국의 행위가 '인'한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만 외교적 수사에 종종 도덕적 가치를 인용하는 것이 중국의 특징임은 분명하다.

덧붙일 것은 유교의 '인'은 일방적인 보살핌으로서, 상호 평등한 기독교식의 겸애(兼愛)와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현대적 의미의 사랑은 서로의 독립과 평등을 보장하고 차이를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의 '인'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것으로, 약자가 강자를 '인애(仁愛)'하는 상황은 성립되기 힘들다. 가난하고 낙후되었던 1950-60년대의 중국이 실정에 걸맞지 않는 대규모의 원조를 실시했던 것은 스스로를 대국으로 인식하고 심리적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4. 문화와 중국 대외원조의 특성

1) 중국 원조의 기반

서구에서는 19세기까지도 자국의 공공재를 다른 나라로 양도하는 것이 국내 여론의 맹렬한 반대를 각오해야하는 문제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원조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것은 오랜 조공체계에 따라 조공과 회사

21) (薄來厚往)

22) 屈從文, 「論天朝觀念的生成和演進機制」, 『國際政治研究』(1), 2007, 1쪽.

23) 『和平共處五項原則』

를 통해 주변국들과 물자를 조달하는 시스템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국가주석 류샤오치가 베트남에게 “중국을 당신들의 후방으로 생각하라.”고 공언한 일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자와 인력의 지원에 대한 중국의 심리적 경계가 낮았음을 보여준다.²⁴⁾

제도적으로도 중국은 원조로 인한 국내 의견의 분열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 ²⁵⁾특유의 당-국가체제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중국 공산당은 서구의 의회처럼 납세자나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화된 윤리라고 불릴 만큼 윤리가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중국에서는 “어려운 이를 돕는다.”는 도덕적 명제가 정치적 행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작았다. 중국은 건국 직후 극도로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제3세계에 원조를 시행했고, 현재까지도 표면적으로는 조건 없는 원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 현실 정치적 필요성이나 진정한 속내의 문제와는 별개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己溺己飢)’ 윤리적 미덕을 추구하는 나름의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²⁶⁾

2) 중국의 정체성과 대외원조

중국은 원조 과정에서 관용을 특별히 강조한다. 중국 원조가 서구의 원조와 구별되는 명확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정치적인 부가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공식적인 근거도 여기에 있다. 수혜국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1964년 저우언라이가 제시한 『대외원조의 8항 원칙(對外援助的八項原則)』 및 2011년의 『5개 지속(五個堅持)』에 이르기까지 중국 원조의 가장 기본적인 고 일관된 원칙으로서, 수혜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요구

24) 韓懷智, 『當代中國軍隊的軍事工作(下)』,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89, 539쪽.

25) 19세기 초 심한 기근이 든 아일랜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의 상하원 간에는 날선 논쟁이 벌어졌다.

26) 謝益顯, 『中國當代外交史』,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007, 172-173쪽.

하지 않는 것으로 미화된다. 중국의 주장은 민주, 인권 등 듣기 좋은 말만으로는 국민들의 도덕 수준을 높일 수 없으며, 경제 상황이 개선된 이후에야 비로소 범죄가 줄어들고, 도덕 체제가 건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관중(管仲)은 “국가는 우선 곡식 창고를 가득 채운 연후에야 예의를 논할 수 있다.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해야 비로소 무엇이 영광스럽고 무엇이 수치스러운지 이해한다.”고 조언했다.²⁸⁾ 맹자 또한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 …죄에 빠진 연후에 형벌에 처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로 잡는 것이다.”²⁹⁾고 충고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해결 방법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압력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또한 수혜국이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가치를 요구하여 도움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어진 사람(仁者)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³⁰⁾ 문제는 관용에서 출발한 중국의 방식이 종종 독재정권을 지원함으로써 ‘不仁’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모순이다.

대국의 관용 이외에 중국의 대외원조에 내포된 또 하나의 정서는 우월감이다. 특이하게도 원조 과정에서 중국의 언어와 제도를 비롯한 중국 문화를 전파하려는 노력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대표적인 중국 문화 전수 기지로 수혜국의 고등교육 기관에 개설된 공자학원 역시 중국어와 중국 문화의 기초 과정 교육을 통해 중국의 화려한 전통 문화를 ‘맛만 보여’준다. 수혜국의 엘리트들이 더욱 심화된 교육을 기대하며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해도 제한적인 모습만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³¹⁾ 결국 중국이 외부에 중국 문화를 소개하

27)李志暉,「中國將繼續与蘇丹北南双方互利合作: 訪中國駐蘇丹大使李成文」,『新華網』, 2011年1月8日.

28)『管子·牧民』

29)『孟子·梁惠王章句上』

30)陳默,「中國援助的非洲模式及其對非洲發展影響的研究」,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31)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외국인 교육 과정으로 2016년 청화대학 내 개설된 Schwarzman College를 꼽을 수 있다. 각국의 엘리트들인 슐츠만의 수강생들은 세심하게 고안된 아름답지만 폐쇄적인 공간에서 철저하게 선별된 프로그램과 인력에

는 목적은 그들의 찬란한 문화를 사랑하여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이지, 과거 서구열강과 일본이 식민지에 기대했듯 철저하게 중국화 된 타자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원조를 시작으로 수혜국 경제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신식민주의’ 의혹의 규명이 애매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중국 특유의 문화적 우월감에 기초한 외부 세계에 대한 배척 심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2)중국이 수혜국에서 원조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수많은 문화적 포섭의 기회들을 방임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중국 원조의 수혜국들

원조 대상의 선택에는 공여국의 가치와 취향, 더 나아가서는 외교 전략이 반영된다. 수혜국 선정에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국익의 추구 외에도 역사, 문화, 정책결정자 개인의 선호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특히 공여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가치관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80여 수혜국 가운데는 북한, 베트남, 몽골처럼 중국과 오랫동안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주변국도 있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수혜국들처럼 교류 기간이 짧은 국가들도 있다. 다음에서는 중국이 타자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이 두 그룹에 대한 원조를 비교해본다.

(1) 오랜 역사적 관계를 공유하는 주변국들

1950-70년대까지 중국의 원조는 베트남, 북한, 몽골 등 주변국에 집중되었다. 이들과 중국 사이에는 과거 조공체계 하에서 맺은 유구한 역사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 시기의 원조에는 공산 국제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슬로건이

둘러싸여 중국 생활을 마친 후 귀국한다. 청화대학의 일반 학생들은 슐츠만 수강생들과 접촉이 제한되며 비치되는 모든 장서는 당국과 학교의 검열을 거친다.
http://www.ssp.tsinghua.edu.cn/column/index_en

32) 고대 중국에서 중국 문화를 누리는 것은 일종의 특권으로, 17세기까지도 외국인의 중국어 학습은 금지되었다.

외에도 역사적 경험이 빚어낸 일종의 책임감이 작용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지속된 천하관과 조공체제가 남긴 낙인으로, 중국이 주변국을 대할 때는 잠재 의식 속에 종주국의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³³⁾ 중국문화에서 국가는 가정의 확대 개념으로서, 고대 중국이 창조한 세계 역시 중국식 대가족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 세계에 속한 국가들은 마치 중국식 가정의 구성원들처럼 서열관계가 존재하고, 중국은 하국(下國)들을 보살필 책무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주변국들에 대한 현대의 원조는 우호적 이미지의 수립 이외에도, 대내적으로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대외적으로는 대국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의 초대 지도자들이 남긴 공식 담화와 문건에서도 전통적 세계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중국과 베트남 간에는 중반관계가 19세기까지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에도 과거의 체제가 남긴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외교부장 저우언라이는 1957년 11개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을 순방한 후, “특히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3개 주변국은 형제이자 동포(胞波)³⁴⁾이며 골육이다.”라고 언급했다. ³⁵⁾당시 순방한 11개 국가 가운데 가족의 호칭을 사용한 것은 3국뿐이며, 나머지 8개국에 대해서는 ‘우호’라는 일반적인 수사를 사용한 점에 주목하자. 이후 이들 3국에 대한 원조는 중국이 특별한 관심으로 살펴, 류사오치 또한 베트남에 대해 전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³⁶⁾ 그 결과 1950년대 베트남에 대해서는 광시성, 윈난성 및 후난성 일부의 경제발전을 희생불능 지경으로 희생시킬 정도로 과격적인 원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혜국의 반응은 중국의 기대를 크게 벗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오히려 반증정서가 고양되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당시

33) 唐慧云, 「試析中國對越南援助(1950—1978)——基于國家形象的視角」, 華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28쪽.

34) 미얀마어로 ‘동포형제’의 의미.

35) 周恩來, 『周恩來外交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0, 187-199쪽.

36) 韓懷智, 『當代中國軍隊的軍事工作(下)』,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89, 539쪽.

국내 및 국제정치 역학에 따른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무엇보다도 수혜국들이 과거의 예속관계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 느낀 불안감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천하 체제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중국만의 것이 아니라, 체제 내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것으로, 수혜국들은 누적된 역사가 남긴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인들은 역사상 자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은 오로지 침략뿐이며, 중국을 곧 침략자라고 인식한다.³⁷⁾ 현대의 국제관계에서 모든 주권국가는 평등하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 조공을 바쳤던 약소국이라도 이제는 주권국가로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중국의 대외원조는 오히려 주변 수혜국의 불안감을 증대시켰다. 주변국들은 물리적 원소에서 시작된 예속관계가 국가 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과거의 종번관계가 되풀이 되거나 않을까 염려하며, 공여국과 수혜국의 비대등한 지위가 영원히 고착될 것을 경계했다. 이런 결과에 실망한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점차 주변국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중단을 결정한다. 비록 경제성장과 함께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 베트남 등 주변국에 대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나, 초기와 같이 적극적인 모습은 찾기 어렵다.

(2) 신흥 수교국들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의 수혜국들은 소위 사해의 밖에 위치했으므로 과거 천하제도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들이다. 이들은 중국 황제가 ‘덕으로써 교화하기’를 포기한 이민족이었으므로 근대까지도 정식 외교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 18세기 초, 영국의 매카트니가 중국을 찾아 통상을 요구했을 때, 건륭제는 “하늘의 왕국은 물자가 풍성하고 없는 것이 없으므로, 오랑캐의 물건을 원하지 않으니 서로 통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는데,³⁸⁾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외교적 공백이 오히려 건전하고 우호적인 현대 외교의 기초가 되

37) 黃文歡, 『滄海一粟—黃文歡革命回憶錄』, 北京: 解放出版社, 1987, 306쪽.

38) 張峰, 「國際體系與中國對外關係——歷史演進與當代建構」, 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67쪽.

었다.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씨줄과 날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변국가와의 관계와 비교하면, 중국과 먼 지역 국가들의 관계는 훨씬 단순하다. 중국은 새로운 수교국들에게 통상적으로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 친구들의 대부분은 훗날 중국의 원조를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이른바 ‘저우추취’³⁹⁾를 강조하며 원조를 통한 기업의 해외 진출, 특히 아프리카 개발 이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당시 원조 사업을 진행했던 중국인들의 검소하고 진지한 태도는 현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전통적 관계가 친족 관계와 유사하다면, 중국과 신흥 수교국들 간의 관계는 친구관계와 비슷한데, 친구관계에서는 평등성이 관계 유지의 핵심이다. 또한 서로 간에 해묵은 은혜와 원한이 없어 수혜국은 중국을 미리 경계하지 않고 현재의 성과 중심으로 바라보며, 중국 역시 상대의 오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이지리아의 철광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중국인 감독자들이 매일 그들과 함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수혜국민들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는 중국이 일정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조와 더불어 공자학원의 설립을 포함한 공공외교의 시도가 이루어졌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문화에 대한 타국의 배타성을 초기에 감퇴시키고 선린우방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으며, 중국이 대외원조의 시행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수혜국의 저항을 상당 부분 감소시켰다.

물론 수혜국도 중국의 원조가 완벽히 이타적인 행위라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앙골라의 기업가들은 입을 모아, “중국은 석유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⁴⁰⁾ 그러나 중국 현대 외교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편에 선 것은 신흥 수교국들로, 이들은 독립을 준비하

39) (走出去),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의미하며, “글로벌화”와 같은 뉘앙스도 지님.

40) “중국이 석유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도, 과거 프랑스와 미국은 어땠는가? 중국인은 절제할 줄 알고 우리 문화를 존중한다.” Serge Michel et Michel Beuret, *La Chinefrrique*. Paris: Grasset & Fasquelle, .2008.

는 과정에서부터 중국과 관계를 맺고 원조를 받아온 까닭에, 중국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4) 중국의 원조 방식

중국이 진행했던 원조 사업들은 대개 규모가 크고 과도하게 화려하다. 1950-70년대에는 북한, 베트남, 파키스탄, 탄자니아, 알제리, 콩고 등에 10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시행했는데, 이는 당시 제3세계 국가들이 외부로부터 받은 군사원조 총액의 4% 정도로,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⁴¹⁾ 중국의 통 큰 행보는 1970년대 이후 원조의 방향을 경제원조로 전환한 이후에도 계속되어, 탄-잠 철도, 평양 지하철, 파키스탄 카라코람 고속도로 등 규모가 크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원조의 일부로 종합 경기장, 종합 체육관, 인민궁전 등 기념비적 성격을 지닌 대형 건축물을 많이 건립했는데, 후한 인상을 주기 위해 호화롭고 눈에 잘 띄도록 지은 것이 특징이다(주요 건축물은 표 4-1 참조). 수혜국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건축물들은 활용에 한계가 있고, 주변 경관과의 격차도 크기 때문에 기묘한 느낌을 준다.

(표 4-1. 2000년 이후 중국의 대형 체육관 원조 현황)

국가	명칭	준공연도	건축면적	수용인원	투자액(RMB)
피지	Fiji Suva multi-purpose sports stadium	2003년	6,650 m ²	3200석	1.1억
카메룬	multi-functional stadium in Yaounde	2008년	13,000 m ²	5400석	1.6억
탄자니아	National Stadium	2009년	68,210 m ²	60000석	4억
몽골	Биеий н тамир спортын ордон	2010년	15,300 m ²	5045석	1.1억
모잠비크	National Stadium	2011년	42,000 m ²	42000석	5억

41) 吳天, 「中國對外援助政策分析」, 外交學院碩士學位論文, 2004, 32쪽.

상징적 건축물의 건립은 부족한 자금으로 원조를 단행해야 했던 냉전시기의 진영 원조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생산형 프로그램을 중단했던 개혁 개방 시기 원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대규모 지출에 구애받지 않게 된 경제 성장 이후에도 지속된 만큼 중국 원조 고유의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념비적 건축물의 건축은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쉽게 명성을 높여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다. 체면을 고려해 관계를 처리하는 일은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데, 체면(面子)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신분, 권위의 반영이며 개인이 타인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교류 과정에서 권리와 이익으로 이어진다. 페이샤오통의 ‘차등적 질서구조(差序格局)’가 지적하듯 중국의 사회 구조는 수면 위로 던진 돌맹이가 일으키는 층층의 파문과도 같다.⁴²⁾ 이런 구조 속에서 개인(자아)은 관계 속의 개체(파문속의 한 지점)에 불과하고, 자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속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인은 타인의 체면 역시 무척 중요시하는데, 남의 체면을 한 번 살려주면, 자신의 좋은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이후 상대가 자신의 문제도 잘 처리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 건축물이 수혜국 국민들의 눈에 띄어 수혜국 정부를 지지하기를 바라는데, 이는 수혜국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체면은 중국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수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에 협력할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구 문화가 인간관계를 통한 권리의 획득을 추구한다면, 중국 문화는 사궤(交情) 그 자체를 핵심에 두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양국 간의 전반적 분위기와 환경, 그리고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외교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42) 페이샤오통(張暎碩 譯), 『鄉土中國: 중국 사회문화의 원형』, 서울: 비봉출판사, 2011, 54쪽.

5. 맺는 글

이 논문은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해 중국 문화가 중국의 대외원조 특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했다. 이를 통해 중국적 행위의 동기와 근원을 탐구하여 중국 원조의 실상에 더욱 가깝게 접근하기를 바랐다.

모든 대외원조가 그러하듯, 중국의 원조 역시 외교 수단으로써 중국의 국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동시에 국제원조라는 '도의적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규범(Norm)에 참여하게 된다. 동시에 중국의 원조에서는 서구의 원조와는 다른 특징들이 발견된다. 본문은 원조가 본질적으로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무엇이 국익인가”를 규정함에 있어 국가 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의 자아 정체성에 인식, 타자에 대한 인식, 이익과 가치에 대한 생각, 이를 실현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여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 따라 ‘대국’으로서 뿌리 깊은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부여한 나름의 책임의식에 따라 때로 현실 상황과 무관하게 원조를 시행하고, ‘인(仁)’과 관용을 과시하기 위해 ‘정치적 조건 없는 원조’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을 포함,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과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국의 자세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종종 제기되는 만큼, ‘인’과 ‘포용’, 대국의 책임 등이 외교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중국의 타자 인식 역시 역사적 경험의 영향을 받아, 중국이 수혜국들을 대하는 태도와 수혜국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베트남은 중국의 원조가 경제적 수단으로 베트남을 다시 한 번 조종하려는 전략이라고까지 의심하고 있다. 결국 원조는 주변 수혜국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켜, 반중정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설령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관념이라 할지라도 역사적 감정의 문제는 개선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의 원조는 역사적으로 가깝지 않았던 아프리카나 중남미와 같은 곳에서 더욱 환영을 받고 있다. 새로이 맺은 관계 위에서는 공여국과 수혜국 양자 모두가 심리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셋째, 효율보다는 관계(關係)와 체면(面子)을 강조하는 중국 문화의 특징이 중국 원조 프로그램과 스타일에서도 드러난다.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양자 원조를 고수하는 것은, 원조금의 ‘국적’을 드러내어 수혜국과의 관계를 개선 또는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은 호화로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의 건립을 통해 중국과 수혜국의 체면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수혜국의 경제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런 시설들은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된 모습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관계와 체면 중시의 문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쌓아온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을 때 언제나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경우라도 양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만약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심지어 보복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상술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태도는 그것이 실제로 중국의 안보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가 보다는 “어떻게 한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배신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치결정 이후, 중국이 안보적 차원의 전략적 검토보다는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예년과 같이 공동개최 하기를 거부한다거나 자국민의 한국 여행은 금지하는 반면 북한 여행은 묵인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화 연구를 통한 분석은 대외 행위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미래 행위 예측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화를 중심으로 원조를 연구한 경우가 매우 적은 실정이라 연구의 깊이와 폭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 또한 중국의 경우, 대외원조와 관련된 모든 수치와 자료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되는 정도가 낮아, 본격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기에는 1차 자료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다 풍부한 1차 자료를 통한 정밀한 분석과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중국의 대외원조를 조명하는 후속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페이샤오통(張映頌 譯), 『鄉土中國: 중국 사회문화의 원형』, 서울: 비봉출판사, 2011.
-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Carol Lancaster,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 Dambisa Moyo, *Dead Aid*, Farrar Straus & Giroux, 2010.
-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Oxford Paperbacks, 2008.
- Henry Kissinger, *On China*. Penguin Press, 2010.
- OECD, *The Aid Programme of China*. Paris: OECD, 1987.
- Serge Michel et Michel Beuret, *La Chinafrique*. Paris: Grasset & Fasquelle, 2008.
- 白云眞, 「中國對外援助的戰略分析」, 『世界經濟与政治』, 2013(5).
- 陳默, 「中國援助的非洲模式及其對非洲發展影響的研究」, 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 韓懷智, 『当代中國軍隊的軍事工作(下)』,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89.
- 黃文歡, 『滄海一粟—黃文歡革命回憶錄』, 北京: 解放出版社, 1987.
- 李志暉, 「中國將繼續与蘇丹北南双方互利合作: 訪中國駐蘇丹大使李成文」, 『新華網』, 2011年1月8日.
- 彭德懷傳編寫組, 『彭德懷傳』, 北京: 当代中國出版社, 2006
- 馮友蘭, 『中國哲學簡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 秦亞青, 「中國文化及其對外交決策的影響」, 『國際問題研究』(5), 2011.
- 屈從文, 「論天朝觀念的生成和演進机制」, 『國際政治研究』(1), 2007.

- 石林, 『当代中國的對外經濟合作』,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 唐慧云, 「試析中國對越南援助(1950—1978)——基于國家形象的視角」, 華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 吳天, 「中國對外援助政策分析」, 外交學院碩士學位論文, 2004.
- 謝益顯, 『中國当代外交史』,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007.
- 閻學通, 徐進等. 『王霸天下思想及啓迪』,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9.
- 姚大力, 「中國歷史上的民族關係与國家認同」, 『中國學術(第12輯)』, 北京: 商務印書館, 2002.
- 張峰, 「國際体系与中國對外關係——歷史演進与当代建构」, 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 趙良英, 「中國負責任大國身份的构建——兼評西方中國責任論」, 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中國的對外援助(2014)白皮書』, 2014.
- 周恩來, 『周恩來外交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0.

Abstract

How Chinese Culture effects to the Uniqueness of China Aid

Pyo, Na-ri

This paper based on constructivism theory and its notion on culture, and analyze the uniqueness of China aid indicated by the result of comparison with western aid. Through two World Wars, aid holds a stable place in each country's diplomacy. Whether it is strategic or unconscious, aid is influenced by the culture of donor country and its social value.

By their Confucius view to the world, China identifies itself 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the grand nation. China's national identity continued into diplomatic rhetoric, its way to treat other nations, relationship(Guan Xi) climate, serious consideration on face(Mian Zi). Consequently, a certain character of China aid was affected by Chinese culture, such as non-political conditionality, disparate relationship with recipients, construction of symbolic buildings.

As the aid is a part of each donor country's diplomatic act, it has to serve its national interests, and so does China aid. Also countries' provide aid to conform a global norm to assist other countries as a moral imperative, and so does China. However this paper was more concerned with the different character of China aid but general tendency.

Analysis by cultural perspective helps to deliver the clearer image of China aid. Culture is the foundation to define national interests, and thus each countries got different definitions on their national interests. Therefore culture and the national interest does not reverse to each other, cultural perspective in this paper does not contradicts previous analysis.

Key words : Chinese culture, China aid, Sinocentrism, Great power consciousness

투 고 일 : 2017. 7. 10. / 심 사 일 : 2017. 7. 15.~ 2017. 8. 15. / 게재확정일 : 2017. 8. 20.